

東洋의發明

그 卑見을 찾는가

〈前號에서 계속〉

天文·曆學

太史局의 직원이 거의 모두 品官에는 이르지 못하는 技能職으로 되어 있었고, 또 品官 35명도 대개는 전문직으로 인정되어 다른 관서로 교류 되는 일이 없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太史局은 전문직으로서 일반관리들과는 다른 교육을 독자적으로 실시하여 직원을 길러 내고 있었고, 이들은 일반행정직으로는 진출될 수도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사회적 지위는 결코 높을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비슷한 전문기술인이 中人이라는 별도의 사회계층을 이루어 온 것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이들이 별개의 사회계층으로 성장하지는 않았다.

唐代的 天文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柳宗元(77~819)이다. 韓愈와 더불어 소위 唐宋 八大家로 불리워질 정도로 그 당시에 문필가로 이름을 날린 그는 중국의 천문학사에도 뚜렷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韓愈가 보다 전통적인 天文思想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그는 아주 反傳統的인 우주관을 글로 남겼기 때문이다.

柳宗元은 우선 자연의 모든 현상이 물질적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즉, 음양이나 元氣가 모두 물질일 뿐이어서 거기에는 아무런 意味가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하늘은 인간을 상주거

나 벌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태도는 董仲舒에서 韓愈로 이어지는 보다 정통적인 유교사상과는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유교의 바탕에 흐르는 天命사상에 비판적인 이런 태도 때문에 그는 자연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인간사회를 반영한다는 해석에도 비판을 가했다. 災異說을 비판하는 이런 태도는 물론 柳宗元에게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 戰國시대 이래 荀子나 王充 같은 학자들이 이미 주장했고 또 柳宗元의 이와 같은 태도는 그의 친구 劉禹錫(772~842)에게서도 똑같이 발견된다.

柳宗元의 비판적 자연관은 우주의 모양에 대해서도 독특한 주장을 내세우게 했다. 그는 우주란 보통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듯 有限하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東西南北 其極無方”이라 하여 우주에는 어느 방향으로도 끝이없다고 쓴 그는 우주의 無限을 생각한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땅의 모양을 만드시 둥글다고 생각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또 그는 땅이 움직인다고도 말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의 地動說을 너무 과장하여 평가할 정도는 못되는 것 같다. 柳宗元의 이러한 생각들은 오늘날 中共의 학자들에 의해 지나치게 높이-평가되고 있다.

그의 이런 생각들이 당시의 지배적인 天文사상과 다른 참신한 것이었음은 분명하다. 그의 이런 생각들이 주로 나타난 곳이 그의 《天說》 혹은 《天對》라는 글이다. 2,500字 밖에 안되는 이 글은 원래 屈原의 글 《天問》에 대한 대답으

- …… 우리는 흔히 現代 發明科學은 17世紀 이후 西洋에서 始作된 것의 延長으로 東洋의……○
- ……發明科學과는 關聯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
- ……이다. 發明科學史는 西洋의 것만이 아니라 東洋의 것도 包括하고 있기 때문이다. ……○
- …… 특히 東洋 發明科學史 중에서도 지금 우리의 血管속에 흐르고 있는 韓國 發明……○
- ……科學史의 背景을 이루는 中國의 發明科學的 傳統에 이해가 극히 重要함을 느끼게……○
- ……된다. ……○
- …… 이와 함께 佛敎를 통하여 우리의 傳統文化에 적지 않은 影響을 준 印度의 自然……○
- ……觀과 우리와 비슷한 傳統에 속하면서도 재빨리 近代 發明科學과 技術의 수용에 成……○
- ……功하여 先進國으로 成長한 日本의 近代 發明科學의 발달상을 살펴볼 必要가 있다. ……○
- …… 이에 本誌는 「韓國의 發明 그 뿌리를 찾는다」에 이어 「東洋의 發明」의 뿌리를 追……○
- ……跡해 보았다. ……○ <編輯者註> ……○

로 쓰여진 것이다. 戰國시대 楚나라의 유명한 시인이던 屈原(340~278 B. C.)은 이 글에서 우주와 자연에 대한 의문을 여러가지로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唐代的 醫藥書

이 시대의 대표적인 醫學書로는 巢元方의 《病源候論》과 孫思邈의 《千金方》을 들 수 있다.

또한 唐의 高宗代에는 《新修本草》가 출간되기도 했다. 이 가운데 《新修本草》는 일찍 없어져 전해지지 않았으나, 그중 일부가 남아있어서 그 대강을 짐작하게 해줄 뿐이다. 너무나 유명한 陶弘景의 《神農本草經》이 나온지 1세기 남짓 뒤에 만들어진 이 本草書는 주로 전의 것을 보충 확장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전의 本草書와 크게 다른 이책의 특징은 우선 西域의 약품이 다량 보충되었다는 점이다. 《神農本草經》이 만들어진 100여년 전까지 만해도 그렇게 많은 서방측 약품은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 책은 또한 그전과는 달리 국가의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그전의 대표적 本草書인 陶弘景의 《神農本草經》이 개인의 작품인 것과는 달리 이 책은 唐 高宗의 명을 받아 蘇敬등이 659년에 만들어 낸 官撰本草書이다. 특히 이 책은 그전과는 달리 채색까지 넣은 그림을 그려 식물의 이름이 지방마다 틀리거나 또는 이름은 같으면서 서로 다른 식물을 가리키

는 경우 혼돈이 없게하려 했다. 여기에는 陶弘景의 책보다 114종류가 增藥되어 있다.

巢元方의 《病源候論》(610)은 隋나라 때 太醫博士 巢元方이 煬帝의 명을 받아 완성한 것으로 역시 官撰醫書이다. 여기 소개된 병의 증후는 1,200종류가 넘는 것으로 당시까지 알려진 病症을 모두 모아 놓은 것이다. 이것은 風病·虛勞病·腰背痛·消渴病·解散病·傷寒病·時氣病·熱病·溫病·疫癘病 등 67門으로 분류되어 설명되고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먼저 질병의 증후를 소개하고 그 원인과 病理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끝으로는 養生·導引·鍼灸의 방법을 소개하는 정도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즉, 여기에는 藥方은 전혀 소개되어 있지 않다. 말하자면, 病理學에 관한 책인 뿐이지 치료에 필요한 약품을 함께 소개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여하튼 이책은 출간 이래 아주 중요한 醫書로 여겨져 宋代에는 教科書로 정식으로 채용되기에 이르렀던 정도다. (계속)

신 간 안 내

技術導入라이센싱契約

규 격 : 국판 194면
 저 자 : 조철현(번리사)
 가 격 : 4,000원
 발행처 : 한국발명특허협회